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4호 【루계 제25477호】 주체105(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꾸바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1월 28일 우리 나라 주재 꾸바대사관을 방문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의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시였다.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모두의 기억속에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 정 은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뚤롱고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성원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뜻밖에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다고 하시면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는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리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여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꾸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잃은 슬픔을 자기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대사관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뚤롱고특명전권대사는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김정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추모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명국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대장 김명국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김정일훈장수훈자인 조선인민군 륙군

본사기자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8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와 리일환,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 김영재 대외경제상,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부위원장인 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외무성, 대외경제성, 교육위원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선꾸바단결위원회에서 보낸 화환들이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대사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꾸바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반제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정의의 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활동가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양 출발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대표단은 김용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로 구성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와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 리창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뚤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바체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창조한 전화위복의 전대미문의 복구건설신화가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앞에 선언한 자기의 결심을 실천하였다. 조국의 북변땅에서 또다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최초 보는 무더기비와 홍수로 대재앙을 입었던 북부지역의 6개 시, 군들에 불과 60여일만에 전설속의 무릉도원인양 1만 1,900여세대의 3층, 5층살림집들과 1동 2세대, 1동 4세대의 단층살림집들, 100여동의 학교, 유치원, 락아소, 병원, 진료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데 이어 오늘은 인민사랑의 이 보금자리마다에서 피치는 인민들의 새집들이기쁨이 네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전쟁이였다. 비록 홍수성은 물리지 않았지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총동원되고 국가의 모든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총발동된 치렬한 건설대격전이였다.

조선로동당이 선언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첫 신호포성이 울린 그날부터 200일전투의 주타격최전방을 종횡무진하던 나날에 우리 한생토록 잊지 못할 업마나 많은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던가.

폐허와도 다름없는 도시와 마을들을 향하여 한걸음한걸음 길을 개척하는 선발대오속에서 삽을 들고 곡괭이를 휘두르며《결사전가》도 불렀다. 사품치는 강물속에 돌격대원들과 함께 뛰여들어 집채같은 바위도 밀어내고 땐 최초 일떠선 다층살림집만장에서 병사들과 어깨를 걷고 정양하늘을 우러러 감격의 만세도 불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진정이 함뿍 어린 사랑의 선물을 지들거들 받아안으며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인민들의 모습을 사진기렌즈에 담으며 우리도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고 송도천으로 떠나는 북변의 아이들을 바래주며《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의 참의미도 가슴뭉클하게 절감하였다.

보고 듣고 느낀것 모두가 기적이였다.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업마나 위대하고 무궁무진한것인가를 만천하에 시위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는 그자체가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의 환호성이며 핵폭탄을 열백개 터친것보다 더 거대한 충격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조선의 힘의 선언이다.

인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울것도 없습니다. 자, 나를 따라 앞으로!》

자동차들이 한대한대 로반경사길에 들어섰다. 대기하고있던 대형삽차가 차직재함의 뒤부분을 들어 밀어주었다. …

이렇게 피해지역의 롯롯에 도착한 사랑어린 첫 물자들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받아안았다. 위대한 어머니의 손길이 자기들을 보살피고있다는 생각에 가슴뭉클했고 열백번 대재앙이 들이닥쳐도 이 땅에는 수재민이란 영원히 있을수 없다는 생각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큰물로 한지에 나앉은 슬픔을 미처 느낄 사이도 없이 파도처럼 련이어 안겨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 하루빨리 재난의 흔적을 박차고 일어서라는 어머니당의 따뜻하고 정다운 그 목소리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았다. 휑포한 큰물과 산사태는 집집의 기둥을 모조리 쓸어버렸어도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다.

지난 9월 좋은 유서깊은 회령천기슭에서 승리의 전주곡인양 혁명군가가 장엄히 울려퍼졌다. 회령땅에 도착하는 길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한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의 장병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안고 회령전역으로 달려온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위훈많은 부대가 복구전투의 첫시작을 시가행진으로 떨친것이다.

힘있고 전투적인 군악에 발을 맞추어 보무당당히 거리와 마을을 누벼가는 일당백 용사들의 름름하고 대전한 모습이며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혁명군가의 우렁찬 노래소리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었다.

우리 군대가 왔다!

수천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병사들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며 피해지역 인민들은 솟구쳐오르는 흥분을 걷잡지 못하였다.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절사관철의 투사들인 병사들에 의하여 폐허로 된 재해지역에 업마나 훌륭한 선경마을, 선경거리가 일떠설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군대가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북부전역에서 인민은 군대를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우리모두가 뼈에 새긴 진리입니다.》

회령시 망양동에서 사는 한 녀성의 이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우리 군대가 왔다!

격정의 이 웨침은 미구에 펼쳐질 전화위복의 환희를 피해지역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안겨주며 무산과 연사, 온성, 경원, 경흥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메아리마냥 힘차게 울려퍼졌다.

인민군대의 위풍 이어 진설의 대군단들이 중기계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북부전역의 전투진지들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 어느날, 삼지연지구건설에 참가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긴급전투명령이 하달되였다.

24시간안에 연사군으로 기동전개할것, 도착하는 즉시 도로개척전투에 진입하여 건설부대들의 기동로를 열어제낄것.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다. 항일의 전구에서 단련된 청년맹장들의 정신력을 다시한번 온몸발시킬 절사의 의지가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격식없이 피력되였다.

당에서는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총포성없는 전쟁으로 선포하였다. 가는 앞길에 사품치는 강물과 험준한 산발이 막아선다 해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복구전선을 가로앉아 돌격로를 열어제끼겠다. …

청년돌격대원들의 열기띤 목소리들이 백두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카야 할 수백리 험난한 길에 비해 운수기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하지만 청년맹장들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온 웨침은 오직 하나였다.

휘발과 혼합기를 비롯한 건설장비들은 자동차로, 우리는 강행군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은 항일의 선렬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새겨져있는 삼지연군과 대홍단의 도로를 일행천리하여 연사땅에 들어섰다. 도로를 개척하고 산발을 타기도 하며 그야말로 철야강행군길을 이어갔다. 목적지에 도착한 돌격대원들의 몸은 땅속에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코 휴식할수 없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이였다.

롯롯에서 우등불이 타올랐고《적기가》의 노래높이 전투가 시작되였다. 연사—무산 도로개척전투가 벌어졌다. 흙사태에 묻힌 수백m의 도로, 뭉청뭉청 끊어져나간 다리들… 용사랑과 맞대하였다.

이틀간 밤낮으로 돌격전의 우렁찬 함성이 산과 골짜기마다에 메아리쳤다. 중기계들이 불을수 없는 곳에서는 돌격대원들이 가설다리를 놓고 맨대전으로 수만㎥의 돌과 흙을 날라다 쌓았다.

그무렵 서풍산역으로부터 무산역에 이르는 수십리 구간에 분산배치된 평양과 함흥, 청진, 개천을 비롯한 각 철도국의 전투원들도 파괴된 철길을 복구하고 하루빨리 렬차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북부전역에 배낭을 풀어놓기 바쁘게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의 철야격전에 의하여 파괴된 무산, 회령방향의 도로들도 한치한치 복구되여나갔다.

단숨에 끊어진 도로와 철길을 잇는 전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위대한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이어주고 어머니당의 온혜로운 손길이 한시바삐 가닿게 하기 위한 절사전이였기에 병사들과 돌격대원들은 통나무를 메고 사품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고 계속되는 전투로 며칠밤을 꼬박 밝히면서도 힘든줄 몰랐다.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이 치렬한 격전을 벌려 혈맥처럼 이어놓은 도로와 철길을 따라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20여만명의 건설력량과 수천대의 중량화물자동차와 중기계를 비롯한 방대한 건설수단들이 피해지역들의 격전장마다에 전개되였다.

당의 해빛같은 사랑을 안고 전화위복의 기적창조를 위해 달려온 병사들과 돌격대원들을 뜨겁게 맞이하며 피해지역 인민들은 격정속에 휘쳤다.

큰물로 모든것을 다 잃었지만 천만금의 가산보다도 더 귀중한것을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만 믿으면 그 어떤 천지풍파도 두렵지 않다. 당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명줄이라고.

신념의 기둥은 재앙속에서 더 굳건해졌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

당중앙위원회의 이 력사적인 호소문을 우리는 당시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무산땅에서 받아안았다.

지금도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쟁하다. 자연의 횡포가 모든것을 휩쓸어간 폐허우에서 입은 옷 한벌밖에 남은것 없는 무산인민들이 감격에 복받여 부르던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의 함성이, 종군의 첫걸음을 무산땅에 갓 찍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한자한자에 인민사랑의 불같은 진정이 흘러넘치는 호소문의 이 구절은 피해지역 주민들뿐아니라 북부전선에로 급파되는 인민군군인들, 돌격대원들,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일시에, 단꺼번에 절사관철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주었다.

오늘도 누구나 한목소리로 말한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당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도 중지하고 모든 건설력량과 설비와 자재를 북부전선에 돌리도록 한 당중앙의 중대결단에 눈굽이 절로 젖어들었다고.

그렇다. 온 나라가 폭풍치며 달려왔다. 최고사령부가 그어준 진군의 화살표따라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던 인민군장병들이 배낭을 메고 북부전선에로의 강행군길에 올랐다. 려명거리건설장과 세포등관, 백두전구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주요전역에 전개되였던 수많은 건설주력부대들도 렬차로, 자동차로, 배로 두만강기슭으로 급파되였다.

선발대와 함께 길을 개척하며 우리의 북부전선종군은 시작되였다.

두만강기슭에서 목격하였던 참혹한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방불하다. 골짜기를 메우며 쏟아져내린 산사태와 큰물로 철길과 도로들이 끊어졌고 전력공급과 통신이 두절되였다. 범람하는 강물에 리만 남기고 떠내려간 집들은 얼마였고 자갈밭으로 변한 농경지는 또 얼마였던가. 사품치는 물결에 휘말려간 혈육들을 부르는 피젖은 목소리를 전하는가 강기슭에 투리를 드리내고 키울어진 아름드리나무들이 사납게 불어치는 가을바람에 가지를 떨며 앙칼진 소리만 내고있었다.

재난은 엄혹하고 슬픔은 형언할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지역 인민들은 비관에 잠겨있지 않았다. 이른새벽부터 앞서거니뒤서거니 도로복구전투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벼웠다. 재난의 흔적이 하나둘 가셔지고 한m한m의 도로가 열리는 전구마다에서는 악동의 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부모, 형제, 친척들도 통신이 두절되여 피해상황을 알수 없었던 그때 두만강 북부지역 상공에 제일먼저 날아온 비행기의 발동소리에서 어머니 우리 당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인민들이였다. 험준한 산발을 타고넘고 사품치는 큰물을 헤쳐 리와 마을을 찾고찾으며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당과 국가의 힘을 총동원할데 대한 당중앙의 중대조치를 알려주는 도, 시, 군당 일군들의 모습은 그대로 인민들모두의 뇌리에 어머니 우리 당의 정다운 모습으로 깊이깊이 새겨졌다.

어머니 우리 당,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신념의 기둥을 든든히 박고 전기, 체신, 도로 등 파괴된 하부구조를 최단기간내에 림시복구하여 당과 국가와의 혈맥을 잇기 위한 첫 전투에 떨쳐나섰다.

바로 이런 때 함경북도당위원회와 피해지역의 시, 군 그리고 련합기업소 당일군들은 명절물자를 9월 9일전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공급할데 대한 전투과업을 받아안았다. 사랑의 물자를 적재함마다에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중기계들의 도움밑에 길 아닌 길을 한치한치 열며 6개 시, 군의 피해지역으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무산읍을 가까이하면 자동차행렬이 더는 전진할수 없었다. 혹심하게 파괴된 철길로반을 타고넘자니 경사가 너무 급해 오를수가 없었던것이다. 9월 8일 저녁을 가까이하는 때여서 림시로 길을 닦자고 해도 시간이 없었다. 도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들이 자동차마다에 뛰여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이 물자들을 받아안고 명절을 쇨 피해지역 인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울것도 없습니다. 자, 나를 따라 앞으로!》

기적으로 충만된 60여일 철야대격전

사상전의 포성으로 본격적인 대격전이 시작되였다.

지난 9월 좋은 어느날 회령시피해복구인민무력성원장지휘부의 제회에 따라 전투시작을 앞두고 각급 부대들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에 대한 대렬검열이 진행되였다. 오봉리 살림집건설전투장에 전개된 방송선전차만 하여도 18대, 음향기재는 80여대에 달하였다. 여러 단위에서 혁주단소련대와 예술선전대, 군악대를 준비시키였다. 또한 1만 4,000여개의 붉은기가 휘날리고 100여m에 달하는 여러개의 직관판들과 6,560여개의 이동식속보판 등이 설치되여 전투장은 화선식정치사업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회령에서만이 아니였다. 무산과 연사, 온성, 경흥, 경원의 복구전선 그 어디에서나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을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에로 부르는 승리의 진격나팔소리, 격동적인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중앙과 도의 예술인들과 작가들도 전화의 나날 종군예술인, 종군작가들처럼 창조의 록음이 휘몰아치는 전선지구를 메주밟듯 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노래폭락, 시폭란을 터치였다.

전투적이며 격동적인 화선선동의 위력은 돌격전에 나선 병사들과 돌격대원들, 피해지역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폭발시키며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으로 나래쳐올랐다.

조선인민군 리철혼소속부대가 피해복구전선에 도착한것은 다른 부대들에서 살림집기초공사가 끝나가던무렵이였다. 3층짜리 살림집 3개 초동건설을 맡았던 부대일에는 2층짜리 락아소와 종합편의시설을 비롯한 여러동의 공공건물건설임무가 더 제기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로력과 시간이 긴장한 조건에서 살림집건설부터 먼저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지휘관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동시에 와닥닥 해제낍시다. 우린 인민군대요.》

그것은 피해복구전투의 제일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인민군대에 맡겨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한 병사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기도 하였다.

지난 기간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정양자라공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머리흰 장령들도, 애어린 병사들도 한덩어리가 되여 달리고 또 달렸다.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회천발전소 통림언제건설당시 단 40일만에 두개의 다리를 완공한 일당백돌격속도의 창조자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것이다. 오중흠7련대칭호를 쟁취한 이 부대의 명성이 북부전선에서 또 업마나 높이 떨쳐졌던가.

큰물로 완전히 파괴된 연사다리의 수십m구간을 복구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부대가 전투좌지를 차지한것은 지난 9월 24일 밤 12시였다. 사품치는 물에 언덕언뚝 솟아난 파괴된 다리기둥의 잔해와 끊어진 다리상판들이 이들을 맞이하였다. 주변에는 살림집들과 물재체취장이 전개되여 시원히 폭파할수도 없는 정황이였다.

《폭파방법이 아니라 함마전으로 철근까지 해결합시다.》,《우리 구분대가 앞장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돌격전의 앞장에서 들격로를 열어가는 말수더구가 적은 공병들의 웨침이였다.

새벽 1시, 부대가 차지한 계선에서는 해불들이 타올랐다. 여기저기에서 병사들이 무쇠팔뚝을 자랑하며 력메만 한 함마들을 휘둘러댔다. 사품치는 물속에서 장병들은 손에 장알이 박히도록, 함마가 닳도록 치렬한 전투를 벌리며 한점 또 한점 콩크리트조각들을 뽑아냈다. 명령지시를 절사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신념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부대일에는 또 다른 난관이 막아섰다. 대형화물자동차 10대분에 해당한 통나무가 있어야 휘틀과 비림목을 만들어 다리상판을 칠수 있었던것이다.

이때 부대장이 전격적인 작전안을 내놓았다. 높이 쌓인 콩크리트조각더미에 강바닥모래를 덧올려 휘틀과 비림목을 대신하자는것이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명안이였다.

즉시 전투가 개시되였다. 파괴된 다리구간을 중심으로 랑익측에서 콩크리트혼합물운반을 위한 통로들이 열리고 수천㎥의 골재가 운반되였다. 콩크리트혼합물을 집중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설비들도 전투장에 바싹 접근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당앞에 걸의다신 날자에 다리복구전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을 생명으로 간직한 인민군대의 일당백공격속도를 남김없이 과시한 격전이였다.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복구전투의 전초선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돌진해가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단숨에의 투쟁기풍은 북구전선에 전개된 수많은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건설력량 대 공사실적에서 최고기록을 세운 수도건설위원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결사적인 투쟁으로 여러동의 5층살림집건설고지에 남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도 누구나 잊지 못하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일같이 산판에 올라 통나무를 베여넘기였고 어깨에 멍이 들도록 통나무를 끌었다. 블로크생산전투장에서는 누가 일군이고 돌격대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지나온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수도건설구상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온 그들은 이렇듯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불가능을 몰랐다.

어찌 그들뿐이랴. 연사읍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청년맹장들의 투쟁도 참으로 간고하였다. 연면수의 물길을 돌린 다음 강모래를 퍼내여 기초를 다지고 살림집을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당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청춘의 심장깊이에 새긴 돌격대원들은 불사신처럼 일어나 격전을 벌렸다. 그들은 와—와— 함성을 터치며 일제히 강물속에 뛰여들었다. 흙마대를 쌓아 가물막이를 하고 한삽 또 한삽 더듬질하며 강바닥을 파나갔다.

3면으로 계속

대승리,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 만세!

북부전선에서의 종군기를 펼치고

2면에서 계속

북방의 산골물에 이발은 떡떡 맞부딪치고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렸으나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청춘의 용맹으로 백수십㎥의 막돌을 기초타입위치까지 가져다놓은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북변땅에서 거세차게 타오른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나날은 선군조선의 만리마속도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한 기적적승리와 위훈창조의 순간순간이였다.

대재앙의 흔적을 털어버리며 1,000여리 두만강연안에서 살림집기초공사가 벌어지던 첫 시기부터 강 저쪽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강기슭에 나와 우리의 살림집건설과정을 눈으로 보고 사진이나 록화물로 찍는 하나의 일과가 새로 생겨났다고 한다.

단 며칠사이에 기초가 다져지고 벽체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였다. 기적이라는것을 말로만 들어오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야말로 일생 보지 못한 천지개벽이여서 매일매일 제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래야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온성군 남양로동자구에 단 50여일만에 수십동의 5층짜리 살림집들이 우뚝 일떠서 사회주의선경거리가 형성된 그날에는 강대안에 방송기재까지 가지고 나와 그들이 말했다고 한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적이 어떤것인가를 체무로 절감한다. 선군조선이 제일이다!

두만강아 길이 전하라, 군민대단결의 감동깊은 화폭을

새로운 영웅신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의 창조과정은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펼쳐진 감동깊은 나날이였다.

무퍼두터운 북부전선종군기의 갈피를 펼쳐가느라면 우리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뜨겁게 오고간 혁명적동지애, 친혈육의 정에 눈시울이 젖어오름을 금할수 없다.

지난 9월 중순 회령시 송학리와 제하리, 계상리로 진출하던 조선인민군 주송남소속부대와 장영식소속부대 군인들은 성북리와 송학리사이에서 도로복구전투를 벌리는 인민들을 보게 되였다. 범람하는 두만강에 의해 강기슭을 따라 뻗어간 외통길이 천수백m나 뭉청 끊어졌던것이다.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도로복구에 동원되였지만 너무도 방대한 작업량이여서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하고있었다.

부대들의 지휘관들은 행군로상에서 작전토의를 하였다. 부대들의 주력이 산발을 타고 계속 기동하도록 하는 한편 륜전기재들과 일부 력량을 도로복구전투에 진입시켰다. 식량, 부식물이 들어있는 배낭이며 세멘트, 삽, 곡괭이 등 건설자재와 작업도구들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아찔한 산발을 톺아오르는 병사들의 모습은 전화의 나날 대전호위작전을 위해 하루밤에 100여리의 험준산악을 강행군하던 근위부대 군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비상한 정신세계는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도로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군인들은 인민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막돌채취전투를 벌리는 한편 가슴을 치는 강물속에 뛰어들어 방틀을 쌓고 막돌을 처넣으면서 도로를 한치한치 열어나갔다. 그리하여 한주일은 더 걸려야 한다고 하던 도로복구전투를 3일동안에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미풍은 조선인민군 김경삼소속부대에서도 꽃펴났다.

부대가 전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큰물로 다리가 끊어져 인민들과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강을 건느고있었다.

인민을 위해 가설다리부터 만들어주자.

부대의 지휘관, 군인들은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떨쳐나섰다. 그들은 강기슭에 널려있는 막돌을 모아 길이가 70여m나 되는 가설다리를 만들어주었다. 휴식도 식사도 뒤로 미루고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인민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항일의 원군, 원민전통이 창조된 력사의 땅 두만강기슭에서 군민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려는 병사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지향에 의하여 꽃펴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어찌 천으로, 만으로 다 헤아리랴.

간고한 행군과정에 한지에서 밤잠을 자는 군인들을 위해 자기 집의 담요와 이불을 들고나온 녀인들도 있었다. 자기들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다하고싶은것이 재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이였다.

지난 9월 하순 조선인민군 김국현소속부대의 건설현장에 무산군 읍의 한 할머니가 풋강냉이 한소쿠리를 안고 찾아왔다. 손자, 손녀벌이 되는 애어린 병사들이 땀흘려 일하는 모습에 감동되여 자기 손으로 가꾼 터밭의 강냉이를 조금이라도 맛보이고싶었던것이다. 부대지휘관들에게 사정도 해보고 버럭 성도 내보았지만 그들은 받을념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등을 떠밀어보냈다. 하는수없이 풋강냉이소쿠리를 안고 돌아오던 할머니에게 부대의 야전현장치료대가 눈에 띄였다. 작업도중 치료받으려고 오는 병사들에게 생각이 미친 할머니는 누구도 모르게 소쿠리를 치료대문앞에 던지다싶이 놓고는 줄행랑을 놓았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가 이 늙은이도 군대를 위해 무엇인가 보탬을 주었다는 생각에 잠겨있을 때 부대에서는 풋강냉이주인을 찾기 위한 지휘관들의 긴급협의가 벌어졌다. 며칠만에야 주인공을 찾아낸 부대의 지휘관들은 할머니가 놓고 간 풋강냉이의 량보다 더 많은 강냉이를 안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그 풋강냉이를 우리 병사들이 먹었다치고 이걸 받으십시오.》하며 강냉이자루를 토방에 털썩 내려놓는 지휘관의 두손을 잡은 할머니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인들의 병실주변에 피해지역 인민들이 남모르게 가져다놓은 갖가지 남새며 과일 등 원호물자들은 이렇게 고스란히 그 주인들에게 되돌아갔다. 부득이 주인을 찾을수 없는 경우에도 인민군군인들은 그 모든것을 피해지역의 해당 인민정권기관들에 넘겨주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지역의 물과 공기만을 마시면 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한결같은 결심이였던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인민들이 물통을 들고나섰다.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병사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산에서도, 회령과 온성, 경흥에서도 볼수 있었다. 나어린 학생들의 손에도 책가방과 함께 물통이 쥐여져있었다. 등교하기 전에는 물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떠가지고 병사들을 찾아가 시원한 물을 마시며 땀을 들이라고 청하는 아이들의 진정에 어느 병사인들 감동되지 않았으랴.

어느날 군인들의 전투장으로 한 녀성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에스키모가 들어있는 바께쯔가 들려있었다. 군인들은 에스키모를 절대로 받을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녀인은 눈물젖은 목소리로 절절히 말했다.

《이 에스키모도 녹으면 물이 되는데 왜 받지 않으려우? 물과 공기는 일없다고 하지 않았소? 어머니가 주는 물그릇으로 알고 그 맘을 조금이라도 식히게 해주오.》

군인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인민, 천만고생을 달게 여기면서도 당을 따라 신념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충직한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리라!

지난봄에 입대하여 많은 군사임무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였던 애어린 병사, 고열속에서도 전쟁마당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복구전투의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던 그 병사가 격전장에서 그만 숨을 거두었다. 너무도 가슴아픈 그 희생앞에서 재해지역 인민들이 흘렸던 하많은 눈물의 자욱자욱, 인민사수전의 전장에서 기꺼이 생명을 바친 병사가 흘린 마지막땀방울의 자욱자욱이 지금도 우리의 종군기의 갈피에 피자욱보다 더 진하게 새겨져있다.

불치의 병에 걸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몸이지만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은 군인은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면서 지팽이에 몸을 의지해가며 대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킨 지휘관도 있었고 수천리밖에 있는 안해와 아들에게서 전해진 뜻밖의 소식을 받고서도 명령관철에 나선 군인이 어찌 처자가 귀중하다고 격전장을 떠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동차운전대를 놓지 않은 초기복무사관도 있었다.

연사전역을 타고앉아 살림집완공의 결승테프를 남먼저 끊은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의 장병들에게 있어서 함경북도돌격대가 맡은 군의 학교들과 탁아소건설이 늦어지고있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수천명에 달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웨치며 그 즉시로 건설현장에 증원해왔다. 기초공사에 머물렀던 건설장들에서 하루이틀사이에 벽체가 솟아오르고 지붕목조가 형성되는 꿈만 같은 광경을 체험하는 돌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수 있으랴.

북변땅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는 바로 군대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며 서로서로의 마음을 바치고 합쳐가는 바로 이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안아온것이다.

백두의 원군, 원민전통을 소중히 담아싣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는 두만강의 푸른 물결아, 길이길이 전해가라.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1,000여리 두만강기슭에 새겨진 군민대단결의 감동깊은 화폭을.

북변땅의 환호성 – 사회주의대가정 만만세!

적대세력들은 북부전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떨쳐나선 우리 조국의 현실을 평하며 이렇게 지껄이였다.

조선이 올해에 려명거리건설로 맥을 다 뽑다나니 북부지역에서 년말중에 대재앙의 흔적을 가신다는것은 빈말뿐이라고.

다른 모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의 원쑤들은 오산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북부전선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은 바로 핵무기보다 강한 사회주의대가정의 사상정신적위력—일심단결인것이다.

두만강연안의 6개 시, 군들이 전례없는 대재앙을 입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전해들은 그 시각부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뿐이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녕 그것은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께서 하신 사랑의 금언이였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발표되였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마음속에 북부전선을 안고 증산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하늘땅이 무너진대도!

바로 이것은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상원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충정의 결의편지의 한 대목이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제일먼저 찾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하늘땅이 무너진대도 당에서 준 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전시생산전투에 과감히 진입하였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우리들이 마땅히 북부전선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전초병이 되자!

생산자대중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이런 철입식정치사상공세로 모체공장으로부터 상원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상청광산을 포함하는 온 상원전역이 새날을 맞이했다. 오늘의 기적이 래일에는 벌써 평범한 기록으로 되어 종전보다 1.5배로 생산실적이 껑충 뛰여오른 속에 상원로동계급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 방대한 세멘트생산과제를 완수하고 어머니 우리 당에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지난 9월 14일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나가고있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달받은 순천의 세멘트기지의 청년전위들 연 1,000여명이 청년전위결사대활동을 벌려 잔사처리, 강구선별, 부가물수집, 내화벽돌운반 등을 진행함으로써 세멘트생산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온 나라의 공장, 농장, 일터마다에서 누구나 북부전선을 마음속에 안고 북부전역의 승전을 앞당기기 위한 증산돌격전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에 항일의 로투사로부터 나어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성심성의껏 바치였다. 그야말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어버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자기의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며 스스로 떨쳐나선 전인민적인 증산돌격전, 지원열풍이였다.

지금도 북부전역의 병참지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청진시의 인민들을 만나면 누구나 이야기한다. 길지 않은 이번 전투기간에 온 나라의 자동차들은 다 보았고 온 나라의 배들도 다 보았으며 온 나라의 기관차, 화차들도 다 본것 같다고.

그들의 이 이야기를 빌어 우리는 북부전선종군기의 한페지를 펼치며 우리의 원쑤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상상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원천—일심단결이 어떤 기적을 낳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을 찾아보게 된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는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더우기 이번 북부전역과 같이 나라의 최북단, 그것도 하나의 철도로선으로써만 전반적인 물자수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두달 남짓한 기간에 옹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방대한 건설공사를 결속해야 할 격전의 승패는 전적으로 수송실적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 북부피해복구전투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물동량들을 북부전역으로 긴급수송하기 위한 륙지와 해상에서의 립체적인 수송작전이 벌어졌다.

지난 9월 27일 북부전선철도수송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였다. 철도성과 각 철도국, 분국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 620여명이 560여개의 주요역과 대들에 즉시에 파견되였다. 북부전선물동상차역과 하차역들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속보판 500여개, 표어 1만 2,000개, 붉은기 1만 4,600여개, 선전화 2,300점 등이 게시되여 철도수송전사들의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비상히 고조시키였다.

당의 사상으로 숨쉬고 자기 힘을 자각한 대중의 정신력은 미증유의 기적을 낳기마련이다. 성적으로 초기에 계획하였던 북부전선물동수송을 위한 기관차, 화차대수는 해당 일군들이 가능한 잠재력과 예비를 다 짜내여 타산한것이였다. 그러나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며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수십만 건설대군의 모습을 마음속에 안고 철도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전례없는 수리속도, 증송성과를 안아왔다.

북부전선용기관차와 화차의 실동대수는 일약 초기의 1.5배, 2배로 각각 뛰여올랐고 경쟁시작전에 비하여 세멘트수송실적은 일간 수천t으로부터 최고 5배이상까지 비약하였다.

나라의 중부와 동부를 련결하는 지구에 야전지휘소를 정한 평양철도국의 당, 행정일군들이 전시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지난 시기의 3배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일평균 수십대의 북부전선행렬차를 활을 때 북부전선의 최전방을 지켜선 남다른 각오를 안은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국적인 기관차견인작업량을 433%로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청진시와 피해지역의 6개 시, 군들에 60여만t의 물동수송, 바로 이 수자속에 당에서 벽을 울리면 산악같이 떨쳐나 강산을 진감하며 화답하는 영웅적인 철도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보석마냥 빛나고있는것이다.

이 나날 동해의 날바다우에서도 우리 조국의 해상수송력사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짐배들의 집중수송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철도수송할 원산항과 흥남항에 집결된 세멘트와 중기계, 마감자재와 건구류 등 방대한 물동수송과제앞에서 륙해운성과 대형짐배들의 일군들과 선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해나섰다.

북부전선이 기다린다.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성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10여척의 배들이 북부전선물동수송에 고정배선되고 지휘성원들이 모든 배들에 파견되였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만장약한 일군들과 선원들은 포장하지 않은 세멘트를 실으면 풍랑에 의한 침류동으로 항해가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9월말~10월 중순의 불리한 바다날씨조건도 북부전선으로 향한 결사의 항행길을 결코 막지 못하였다.

지난 10월 5일 밤 흥남항과 원산항에서 각각 세멘트 8,160t, 4,506t을 싣고 출항한 《강계》호와 《송평7》호는 동해상에서 17m/s의 강풍으로 인한 3m이상의 파도와 맞다들쳤다. 이런 때는 항행상 가까운 안전한 곳에 빨리 대피하는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선원들은 주저없이 날바다와의 싸움에 떨쳐나섰다. 갑판에 나선 일군들이 웨쳤다.

《동무들, 원쑤들이 이 땅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을 때 어머니 우리 당은 인민사랑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오늘의 전투는 광란하는 바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원쑤들과의 사생결단의 해상격전이다!》

그 비장한 호소에 전체 선원들이 호응해나섰다. 무려 20여시간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강계》호, 《송평7》호는 끝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고야말았다.

원산항에서 마감건재 1만 1,695㎥와 수백명의 로력을 싣고 청진항으로 항행중이던 《홍원88》호는 10월 12일 새벽 2시 김책앞바다에서 주해수뽐프의 평각판이 파괴되였다. 바다물이 들어오는 위험한 정황이 조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된 그 순간 선장을 비롯한 배의 지휘일군들이 그들앞에 나섰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짐배 선원들이 있는 한 두려울것이 없습니다.》이 말을 남기고 그들은 선원들과 함께 분분초초를 다투는 치렬한 수리전투에 진입하였다. 모든것이 치차처럼 맞물리는 속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고 끈끈내 파괴된 부위를 찾아냄으로써 그들은 1시간만에 항행의 배고동소리를 다시금 높이 울리였다.

당중앙의 호소에 심장을 내대고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불타는 충정을 안은 륙해운부문 일군들과 선원들, 40여일간의 치렬한 해상수송격전끝에 그들은 드디여 지난 10월 28일 마지막세멘트를 실은 《회령》호를 청진항에 무사히 입항시킴으로써 당의 전투명령을 기한전에 앞당겨 관철하고 북부전선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불같은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온 나라 천만군민이 마음속에 북부전선을 안고 떨쳐나선 전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공격전은 드디여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

북부전선에서 본격적인 건설전투가 벌어져 단 60여일동안에 근 1만 2,000세대의 새 살림집들과 100여동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우뚝우뚝 일떠서고 1만 5,0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보수된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우리의 원쑤들은 전률하였다.

회령과 무산, 연사, 온성의 읍지구와 로동자구들에 재난의 흔적을 거뿐히 없애버리고 일떠선 수십개의 사회주의선경거리들, 피해를 입은 6개 시, 군의 읍과 리들에 솟아오른 수백개의 선경마을들은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원쑤들에게 들씌우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총포탄들이였다.

로동당시대 전화위복의 기념비로 우뚝 솟아오른 사회주의선경마을, 선경거리에 삶의 보금자리를 펴던 날 재해지역 인민들이 터쳤던 격정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몸은 비록 평양에서 수천리 떨어진 조국의 최북변에 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제일 가까운 곳, 붉은 당기 높이 휘날리는 당중앙뜨락안의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우리는 삽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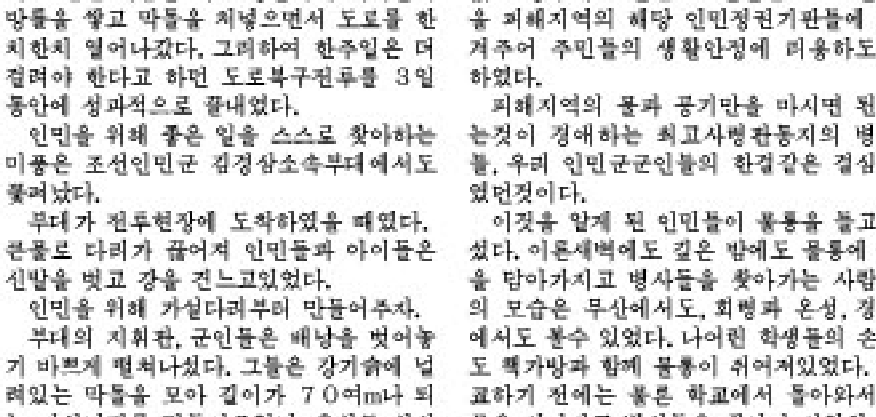
전대미문의 대재앙은 우리 조국 북변의 몇개 시, 군들에 피해를 입힐수는 있었어도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진전은 추호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오히려 난관과 시련은 당의 두리에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었으며 최후승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이 굳건한 신념과 의지의 밑뿌리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진정으로 이 땅에 기적과 승리, 행복과 번영만을 안아오시는 인민의 하늘, 인민의 어버이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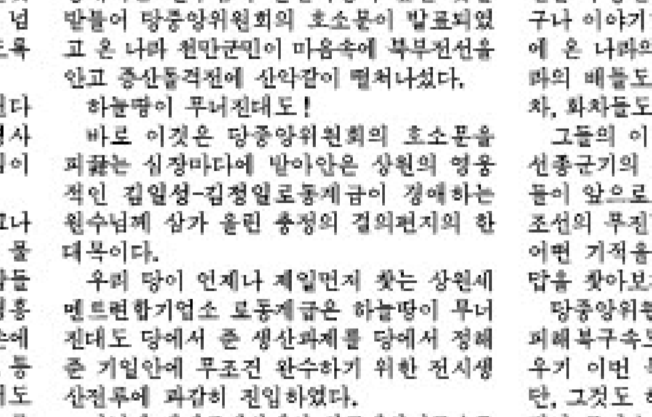
2016년의 전화위복의 기적을 되새겨볼 때마다 북변땅인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대대손손 전설같이 외울것이며 이 나라 인민은 전화의 나날에 우리 수령님과 맺은 그 혈연처럼, 고난의 행군길을 헤치며 우리 장군님과 나눈 그 진정처럼 우리 원수님과 한혈육, 한식솔, 하나의 힘으로 더욱 굳건하고 진하며 열렬하게 이어진 혼연일체의 60여일 낮과 밤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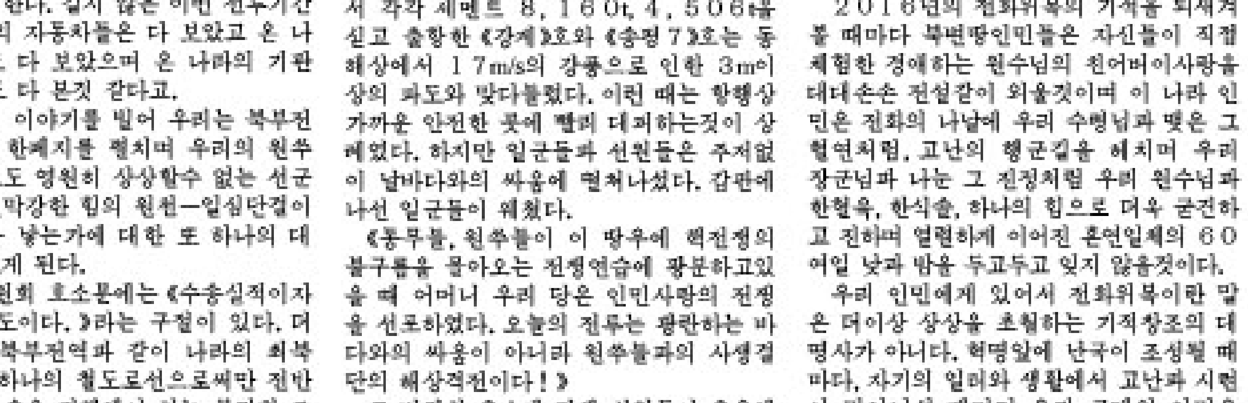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이란 말은 더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창조의 대명사가 아니다. 혁명앞에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자기의 일터와 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의 9월호소문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를 생각할것이며 그때처럼 당을 믿고 자신을 믿고 승리를 믿으며 불사신처럼 돌진해나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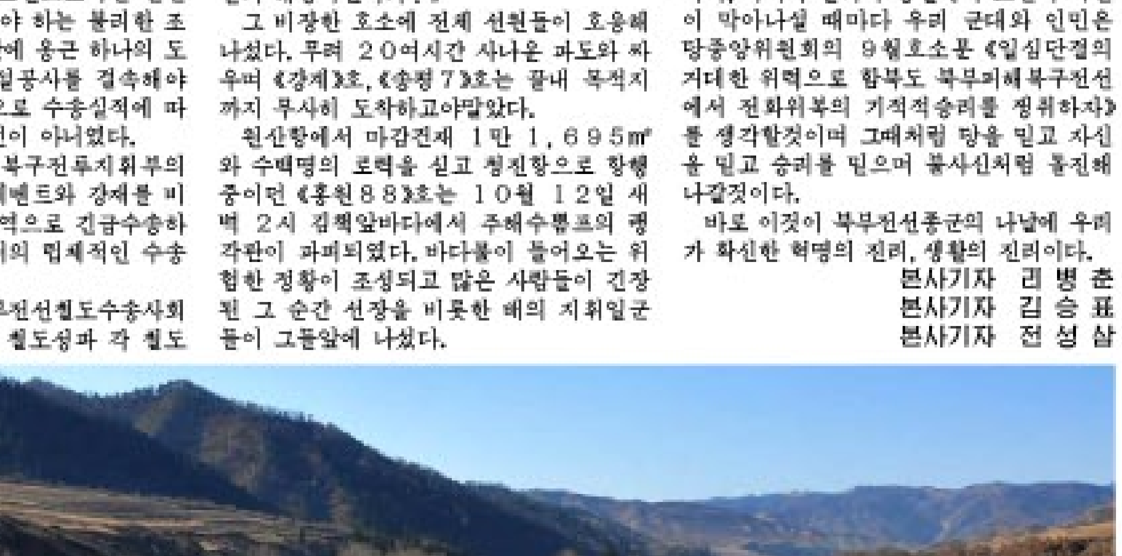
바로 이것이 북부전선종군의 나날에 우리가 확신한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본사기자 김승표
본사기자 전성삼









본사기자 김진명, 리진명, 리동규 찍음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에 승리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기리

항공절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태어나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쳐온 주체의 항공무력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항공절의 년륜을 또다시 조국력사에 아로새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왔습니다.》

뜻깊은 이 아침 조국의 령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미더운 하늘초병들은 주체적인 공군무력건설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 벌써 조국의 하늘을 철통같이 지킬수 있는 자체의 항공무력, 우리 나라 항공대창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

당창건직후 제일먼저 조선항공협회부터 조직하시고 친히 첫 회장이 되시여 새 조선의 청소한 비행대를 정규적인 항공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헌신의 자욱자욱을 어이다 헤아릴수 있으랴.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서 항공군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로 주체적인 항공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광스러운 군건설사의 갈피에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 29일 신의주항공협회에서 한 력사적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무비의 담력과 슬기를 키운 우리 비행사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 무적의 용맹을 떨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비행기와 함께 적의 함선을 향해 육박해간 백기락영웅,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는 마지막전파를 날리고 적함에 육탄이 되어 날아든 한계만, 김정흡동무들, 《하늘의 제왕》이라고 뽐내던 미공군장교놈의 비행기를 단번에 요정낸 19살의 심능환비행사를 비롯하여 《하늘의 요새》로 불리운 미제의 《B-29》편대에 불벼락을 안긴 미더운 비행사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의지와 배짱을 그대로 닮아 미제공중비적들을 통쾌하게 쳐부시던 1950년대 전화의 하늘용사들의 모습을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백승의 나래를 활짝 펼친 우리의 항공무력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세계적인 최정예대오로 자랑떨치며 주체의 항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리정표를 아로새기였다.

세상사람들은 오늘도 기억하고있다. 1960년대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여러해동안 감행하며 하늘이 좁다하게 돌아치던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우리의 령공에서 박산낸 조선의 용감한 은빛날개들을.

또 한분의 선군령장께서 안겨주신 백승의 담력과 기상을 안고 자랑스러운 하늘의 결사대원들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력사의 승리만을 안아왔다.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함이라면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시험비행기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여 수령결사옹위의 항로를 어떻게 날아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몸소 비행지휘탑에 오르시여 비행사들이 우리 식 공군전법을 능란하게 활용하는 하늘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어떤 정황도 능숙하게 대처해나가는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간직하였기에 1990년대의 자폭용사 길영조영웅과 같은 신념의 강자들이 수없이 자라나 수령결사옹위의 항로로 더 높이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설하여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항공무력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강군, 쇠소리나는 무적필승의 무력으로 자라고있다.

비행사들을 자신처럼 믿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신께서는 늘 비행사들과 함께 조국의 하늘을 날으는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깊은 밤, 이른새벽 비행사들을 찾아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의 정월에만도 여러차례나 항공부대들을 찾고찾으시여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끝없이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눈앞에 어려온다.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라도 날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 의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항로를 따라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목표를 족탕쳐놓던 일당백불사조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전투비행사들의 초저공비행과 도약에 의한 습격기동을 보시며 정말 잘 한다고, 마치 우리 조국의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한다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속에 더욱 창창할 내 조국의 하늘을 그려보며 천만군민의 가슴가슴도 더없는 격정으로 설레이지 않았던가.

때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침실과 세면장, 평창고, 식당, 취사장, 온실, 버섯재배장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비행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 얼마나 눈시울뜨거이 우러렀던가.

태양열물가열기에서 나오는 세면장의 물온도도 가늠해보시며 한겨울에도 더운물을 사용하도록 해주니 자신의 마음이 흔흔해진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환하신 미소.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화장품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왔는데 비행사 안해들에게 3.8절을 축하하는 최고사령관의 인사와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시던 자애깊으신 음성이며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면서는 당에서 금싸래기처럼 아끼는 비행사들의 식사보장을 맡은 취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르시던 절절하신 당부는 정녕 이 세상 그 어떤 불구름에도 타지 않을 억센 날개를 달아준 위대한 사랑이였다.

그 사랑과 믿음을 안고 불굴의 용사로 자라난 녀성전투비행사들의 미더운 모습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으로 내세워주신 처녀비행사들의 담찬 모습.

녀성전투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용하다고, 하늘의 꽃이라고, 전군사에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녀성의 기개를 과시한 영웅조선의 효녀, 훈련영웅들이라고 치하하신 그 말씀도 분에 넘치는데 그들을 집에 보내여 오늘의 훈련성과를 자랑하게 하자고, 항공군사령관과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가 훌륭한 딸을 둔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은 진정 하늘에도 비기지 못할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주었다.

어찌 그날의 녀성비행사들뿐이랴.

두해전 태양절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주체의 건군사에, 항공군의 력사에 특기할 리정표로 아로새겨진 력사의 그날 대회장의 높은 연단에 오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떠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령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이며 영용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적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주체적항공무력강화발전의 진행정이 한가슴에 뒤새겨지는 격동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거하시기 전날 밤에도 비행사들의 평양진학과 관련한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고, 자신께 마지막으로 걸어오신 전화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비행사들을 평양에 불러 고무해줄데 대한 문제였다고 아직 그 누구도 몰랐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부부비행사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애국자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그 대회장에서 몸소 부부비행사의 아기이름까지 지어주실 때 거듭거듭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목메이는 비행사들의 무쇠가슴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넘치던 그 격정은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은 정을 운명의 피줄기로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백승의 은빛날개로 굳건히 지켜가리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을 기다린다!

그렇다.

이런 신념을 간직한 하늘의 결사대, 조선의 붉은 매들이 이 시각도 위대한 조선로동당기와 최고사령관기 펄펄 휘날리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기에 영원한 승리의 노래, 수령옹위의 노래는 더욱 우렁차게 내 나라의 하늘가에 울려갈것이다.

…

날개우에는 해와 별이 승리의 항로 비치고
날개밑에는 정든 산천 위훈에로 불러준다네
출격출격 명령이 내려 푸른 하늘로 높이 날을제
당중앙을 사수하는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본사기자 장정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아라끼 사까에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강영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거창한 혁명실천, 열화와 같은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성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은 태양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한 총련일군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과학기술전당 참관

아라끼 사까에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이 28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과학기술전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21세기 주체적 건축예술의 본보기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 훌륭히 건설된 전당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응용과학기술관, 어린이꿈관, 전자열람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또한 이날 대표단성원들은 평양중등학원,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8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출발

김영철 전력공업성 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8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11호 주체105(2016)년 11월 2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송림항
청남탄부피복공장 재단직장

2중3대혁명붉은기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진설직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된장직장
2.8직동청년탄광 12갱 채탄1중대
청천강화력발전소 생필직장
평안남도송배전부 공무직장
신의주은하타올공장
단천선박공장 기관수리직장
북청자동차사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해운직장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자재공급과
평양해운사업소 운수3직장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국립교향악단
락원봉화피복공장
순안목재가공공장 제3직장

3대혁명붉은기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시원림건설사업소
룡수궤도전차사업소 운영2대대
락랑구역 금대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평천구역체신소
보통강구역편의봉사사업소 류경리발미용작업반
순천화력발전소
룡림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명학탄광 축산작업반
독장청년탄광 제품관리판매과
대동군 상서협동농장 제8작업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배합먹이직장
신양군송배전소
숙천군 칠리농장 청년작업반
양덕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운산군 룡양협동농장 제4작업반
염주군 외하협동농장 제4작업반
철산군 성암협동농장 제4작업반
비래봉지질탐사대
배천군 원산협동농장 제1작업반
신원세멘트공장 공무직장
재령군 강교협동농장 제1작업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원료공급과
진천군 화양협동농장 제3작업반
자강도전력설계연구소
장강버섯공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안변림산사업소
원산수산대학 어로학부
동명려관
청진세멘트공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관차대
단천시 직철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고원군 전탄협동농장 제1작업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건설과
은파역
룡강화강석광산 가공작업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상원건설사업소
체육과학도서관
경흥은하수식료공장 빵작업반
이딸리아료리전문식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12호 주체105(2016)년 11월 2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영예의 붉은기
신의주시 근화초급중학교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초급중학교

영예의 붉은기
강계시 석조소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전국력사학부문 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인류진화발전사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교시를 주신 40돐을 맞으며 전국력사학부문 과학토론회가 28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리혜정 사회과학원 원장, 룡주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 평양시안의 대학들과 사회과학부문의 일군들,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장 최수남, 실장 한금식,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로철수, 사회과학원 소장 손수호,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전룡호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조선사람의 기원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인류진화발전사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인류문화의 려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인류진화발전사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인류진화발전사연구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서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이 창조한 문화가 세세년년 이어지며 순차적으로 발전하여왔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발전의 첫시작부터 우수한 문화를 가진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였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견해를 타파하고 주체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력사유적발굴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을 내오도록 하시고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력사연구집단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40년간 인류진화발전사연구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의 인류의 기원과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어용사가들의 반동적인 력사위조행위에 된타격을 가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한 많은 도서들과 론문들을 집필출판하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와 인류의 발생발전력사를 보여주는 화석들이 순차적으로 발굴되여 인류진화발전사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립체계화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발굴된 인류화석들은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세계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유산이며 우리 나라가 인류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라는것을 증명해주는 확고한 물질적자료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족이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우리 조국강토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 형성발전의 전 력사적기간에 하나의 혈통을 대대로 순결하게 이어오면서 혈연적공통성을 이룩한 민족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류학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천만군민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국간석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간석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7일과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과 간석지설계연구소,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등 10여개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간석지건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7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계도간석지, 홍건도간석지, 룡매도간석지를 비롯한 간석지건설에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전자지도에 의한 간석지건설지원체계》, 《중심물조류선행전단면전진막이공법》, 《장석문리띠에 의한 방조제경사면피복구조》, 《륙상쇠그물돌자루투석기의 구조와 투석방법》 등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등지고 반역을 일삼는 역적패당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파렴치한 여론기만책동

위기모면을 노린 《북풍》소동

피뢰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며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앞장에서 계속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피뢰들이 얼마전 미국이 주도한 범죄적인 유엔 《북인권결의안》 채택놀음에 제일 극성을 부리며 적극 가담해나섰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어쩐다 하고 비린청을 돌구면서 해외의 어중이떠중이들과 간담회를 벌린다, 면담을 한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얼마전 피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와 피뢰통일부 장관 홍용표역도는 서울에 기어든 유엔특별보고관이라는자와 반공화국 《인권》 모략광대극을 벌려놓고 《북주민들의 삶의 질》이니, 《인권증진》이니 하고 우리를 걸고들며 제기름을 물고 헐뜯으면서 《긴밀한 협력》을 구걸질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야말로 정신나간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광대놀음을 벌릴수 없을것이다. 제 집안을 최악의 인권불모지,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만든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로 하여 당장 력사의 무덤에 처박힐 카렌한 신세에 처한 박근혜패당이 감히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모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실로 황당하고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피뢰들이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어쩌구저쩌구 하는것은 인민을 위한 정치가 활짝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악에 발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우리 공화국의 북변천리에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단 2개월만에 번듯하게 건설된것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 봉쇄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폐허나 다름없는 6개 시, 군의 피해지구에 새 거리와 마을들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우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백사천사우에 인민의 리익을 놓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한없이 위대한 어버이의 부름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로 화답해나섬으로써 마침내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세계 그 어디에서 인민을 위한 이런 열렬한 사랑과 무한대한 헌신을 찾아볼수 있는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가장 아름다운 현실로 펼쳐지는 최상의 인권존중의 나라, 인류가 꿈꾸는 인권실현의 참된 본보기이다. 이런 진실같은 화폭을 미국의 더러운 식민지주구이며 추악한 인족반역의 무리인 박근혜패당은 백번 죽었다나도 흉내조차 낼수 없다.

오늘도 남조선에서 누구나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 눈물을 삼킨다는 《세월》호대참사는 남조선의 협악한 인권실태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수백명의 어린 목숨들을 바다물속에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피뢰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과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빚어낸 고의적인 집단학살범죄이다. 피뢰패당은 《세월》호가 조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을뿐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역도는 7시간동안이나 제불장을 보며 돌아쳐 응당 살릴수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음에로 몰아넣었다. 그리고는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각계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시체장사군》이니, 《종북세력의 란동》이니 하고 모욕하면서 원한서린 인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것이 바로 인권에 대해 그토록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박근혜역적패당이 한짓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구 짓밟는 이런 랭혈한 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아있기에 남조선에서는 메르스사태, 지카비루스사태, 백남기농민사망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과 참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도처에서 인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는가.》고 울분을 터치고있는것이다.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짓눌린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꿈을 버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잃은채 절망속에 신음하고 철부지아이들이 제 친부모의 손에 살해당하고 늙은 부모가 자식들에게서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세상, 사병들이 상관에게 얻어맞아 온몸에 피멍이 들고 배가 터져죽는것과 같은 몸서리치는 인권말살, 폐륜패력행위가 범람하는 땅, 최순실과 같은 정치사기군, 특권족속들이 활개치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개, 돼지로 취급당하며 가중되는 생활고속에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야 하는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지구상에 나라도 많고 형형색색의 정치체도들이 있지만 남조선과 같이 인간의 모든 권리가 깡그리 말살되고 파쑈독재가 판을 치며 온갖 부정부패와 범죄가 만연되는 인권의 처참한 무덤, 중세기적인 암흑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남조선사회를 이런 사람 못살 생지옥, 인권의 완전한 폐허지대로 만든 박근혜역적패당이 그 추세에 낯짝을 뻣뻣이 쳐들고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와 후물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피뢰패당이 말을 보고 짖어대는 개처럼 제아무리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나발질해도 인권의 대최원인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꼬물만큼도 흐려놓을수 없다.

멸망의 시각이 카까와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악착스럽게 매달리는것은 력대 피뢰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가 란탕쳐놓은 사회를 《지옥같은 세상》이라고 개탄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인간증오, 인간멸시의 세상으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피뢰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분노의 함성이 가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터져나오고 반 《정부》 투쟁의 초불은 청와대를 통째로 불살라버릴 기세로 타오르고있다. 인민의 버리우에 군림하여 독재통치와 부정부패에 미쳐들아가던 청와대의 늙다리마녀와 그의 손발노릇을 해오던 역적패당은 이제 와서는 눈을 먼히 뜬채로 북망산에 묻혀야 할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의 멸망은 시간문제이다.

바싹맞은 피뢰패당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더욱 광분하는것으로 저들의 협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우고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려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추악한 목숨을 건져보려고 감히 우리의 사상과 제도,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살아숨쉴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매달리며 천하의 대역죄를 거리낌없이 서지르는 피뢰역적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가장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라 설 하

피뢰보수패당이 위기에 몰릴때마다 상투적으로 벌리는 소동이 있다. 다름아닌 《북풍》 조작책동이다. 지금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패당도 잔명부지의 출로를 《북풍》 조작에서 찾으면서 미럴한 음모책동을 벌리고있다.

몇가지 사실을 보자.

얼마전 《새누리당》의 악질보수분자인 김진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박근혜투쟁에 대해 갖은 악담을 늘어놓던 끝에 시위투쟁에 나선 중, 고등학교학생들의 투쟁구호를 《북의 표현》이라고 물고늘어지면서 《배후에 종북주의교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자는 투쟁에 나선 학생들이 고등학교학생들이 아니라 이전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라는 억지주장까지 피면서 중, 고등학교학생단체들에 대해 《리적단체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지어 그 무슨 《란수표방송재개》니, 《송월기지폐》이니 뭐니 하는 잠꼬대같은 넉두리를 펴치면서 《북이 만 《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나발까지 불어댔다. 실로 어이없는 생트집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박근혜퇴진투쟁은 그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선동에 따른것이 아니라 온갖 반역적악정과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청와대악녀에 대한 쌓이고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다. 이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창 배움의 희망을 꽃피워야 할 남조선의 중, 고등학교학생들이 반박근혜투쟁에 나선것이야말로 청와대늙다리의 망령으로 끔찍해 꼽은 남조선의 썩은 정치풍토를 하루빨리 갈아엎어야 한다는 민심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그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선동에 의한것으로 매도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항거의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이며 모독이다.

원래 김진태로 말하면 《천안》 호사건과 무인키소동 등 남조선에서 련속 일어나는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우리와 결부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체질적인 대결광이다. 이런 악질보수분자가 또다시 《종북》나발을 불어댄 목적이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반박근혜투쟁을 《종북세력의 란동》으로 몰아대고 여론의 초점을 흐려 박근혜역도의 숨통을 열어주자는데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김진태만이 아니다. 피뢰보수패거리들속에서는 《북의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는 불순한 망발들이 왕왕 튀어나오고있으며 극우보수언론들도 그에 맞장구를 치며 여론조작과 현실외곡, 허위보도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피뢰군부깡패들은 그 무슨 《국정공백을 틈탄 북의 도발가능성》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화약내짙은 북침불장난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피뢰호전광들은 최근 련합해상훈련, 련합공중타격훈련 등 미국과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요란하게 벌처놓는것과 함께 피뢰군 단독의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사회전반에 《안보불안》, 《안보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런 속에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 리순진역도는 《데비태세 점검》의 간판밑에 전방부대들에 련이어 나타나 《오직 적만 바라보라.》느니,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느니 하는 폭언들을 쳬쳤다. 피뢰륙군참모총장이라는자는 《북의 특이동향》이니 뭐니 하는 당치않은 나발을 불어대면서 출장까지 취소하고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졸개들을 군사적도발에로 내몰았다. 이미 피뢰국방부는 《북의 도발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각 부대들에 하달한 상태이라고 한다. 이것이 자국적인 도발망동으로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발시키고 충격적인 무장충돌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로 쏠리는 민심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불리한 정세국면을 역전시키려는 반역패당의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심상치 않은 박근혜패당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자들이 위기수습을 위해 북침전쟁도발도 서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뢰들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미 커멓이 남대로 난 현실레짝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역도가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북풍》 조작에 기승을 부리였지만 결국은 오늘과 같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야 말았다.

피는 지은대로 가기마련이다.

박근혜일당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전 종 호

전국민적저항의 거대한 물결로 새세상을 세우자

비상국민행동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에 즈음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11월 30일 보다 강력한 국민저항으로 역도의 즉시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시민불복종투쟁에 전체 국민이 참가하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초불은 들불이 되였다.

바람이 불어도, 찻눈이 내려도 거리들은 다시 200만의 함성으로 가득찼고 불꺼진 청와대는 성난 민중의 과도앞에 오직 경찰을 방패막이삼아 숨어있었다.

바람이 불면 초불은 꺼진다고 했지만 지금 바람앞의 등불신세인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정권》 자신이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4%짜리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있는것 같다.

《면호사》의 입을 통해 박근혜는 스스로 어떤 잘못도 한것이 없으며 《국정》 운영을 계속할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하려면 해보라》고 한다.

안하무인에 오만방자라고밖에 할수 없다.

《대통령》 자격이라고는 4%조차도 파분한 범죄혐의자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것이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유지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박근혜가 멈추지 않겠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춰세우려 한다.

11월 30일 민주로총이 사상최초로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의 기발을 올린다.

중소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일손을 놓는다.

학생들은 책을 덮고 수업을 거부한다.

광장의 함성을 우리가 살아숨쉬는 모든 현장과 공간에서 다시 불러일으킬것이다.

세상을 바꾸는것은 저 부패한 권력과 제법, 그 부역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것을 보여주자.

박근혜 《정권》의 온갖 쌀이 고쌀인 폐단을 청산하고 우리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라는것을 보여주자.

11월 30일 우리가 세상을 멈춰세우자.

총파업과 전국민적저항의 거대한 물결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정계, 종교계원로들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합의문 발표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 종교계원로들이 27일 모임을 가지고 박근혜에게 《하야》를 선언할것을 요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선거가 진행될수 있도록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여야정치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단 하루도 그침없는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력사의 단두대에 세울것이다

비상국민행동 박근혜퇴진을 위한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선언문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28일 서울의 민주로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1월 30일을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하였다.

단체는 30일 남조선 전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일손을 놓고 민주로총이 전개하는 총파업 등 박근혜퇴진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며 저녁에는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초불집회와 때를 같이하여 각 도, 시단위로 초불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로총 대변인 겸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은 전국민적항쟁이 계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있다고 하면서 그를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미 200만명의 각계층 민중이 박근혜 즉시퇴진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국민의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주말의 대규모초불집회는 계속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 부위원장은 초불의 힘에 로동자의 총파업을 합하여 박근혜 《정권》을 즉시 퇴진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금속로조가 25일 총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앞서 룡공운수로조, 건설로조 등 여러 소속단체들도 총파업돌입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30일의 총파업이 민주로총만이 아닌 전체 국민이 함께 하는 총파업이고 시민불복종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커다란 관심속에 《전봉준투쟁단》을 구성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하여온 전국농민회총련맹 의장은 이번 총파업때 현재 평택에 미뤄지고있는 투쟁단의 뜨락또르가 반드시 광화문광장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전국빈민련합 의장은 초불에 담긴 민심은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을 끊어달라는것이라고 하면서 도시빈민들이 국민저항운동에 나설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전국류통상인련합회 상임리사는 민주로총과 함께 재벌해체를 위한 범적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파멸의 운명에 처한 권력을 구차하게 이어가는것은 박근혜에게도 굴욕이지만 국민에게는 더욱 치욕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가 이미 저지른 불법정책만도 차고넘친다고 하면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말로 청와대늙다리의 망령으로 끔찍해 꼽은 남조선의 썩은 정치풍토를 하루빨리 갈아엎어야 한다는 민심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그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배후조종이나 선동에 의한것으로 매도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항거의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이며 모독이다.

원래 김진태로 말하면 《천안》 호사건과 무인키소동 등 남조선에서 련속 일어나는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우리와 결부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체질적인 대결광이다. 이런 악질보수분자가 또다시 《종북》나발을 불어댄 목적이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반박근혜투쟁을 《종북세력의 란동》으로 몰아대고 여론의 초점을 흐려 박근혜역도의 숨통을 열어주자는데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김진태만이 아니다. 피뢰보수패거리들속에서는 《북의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는 불순한 망발들이 왕왕 튀어나오고있으며 극우보수언론들도 그에 맞장구를 치며 여론조작과 현실외곡, 허위보도에 열을 올리고있다.

특히 피뢰군부깡패들은 그 무슨 《국정공백을 틈탄 북의 도발가능성》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화약내짙은 북침불장난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피뢰호전광들은 최근 련합해상훈련, 련합공중타격훈련 등 미국과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요란하게 벌처놓는것과 함께 피뢰군 단독의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사회전반에 《안보불안》, 《안보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런 속에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 리순진역도는 《데비태세 점검》의 간판밑에 전방부대들에 련이어 나타나 《오직 적만 바라보라.》느니,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느니 하는 폭언들을 쳬쳤다. 피뢰륙군참모총장이라는자는 《북의 특이동향》이니 뭐니 하는 당치않은 나발을 불어대면서 출장까지 취소하고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졸개들을 군사적도발에로 내몰았다. 이미 피뢰국방부는 《북의 도발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각 부대들에 하달한 상태이라고 한다. 이것이 자국적인 도발망동으로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발시키고 충격적인 무장충돌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로 쏠리는 민심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불리한 정세국면을 역전시키려는 반역패당의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심상치 않은 박근혜패당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자들이 위기수습을 위해 북침전쟁도발도 서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뢰들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미 커멓이 남대로 난 현실레짝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역도가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북풍》 조작에 기승을 부리였지만 결국은 오늘과 같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야 말았다.

피는 지은대로 가기마련이다.

박근혜일당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분노한 민심 초불바다되여 온 남녘땅을 휩쓴다

상전과 주구의 무분별한 군사적결탁

얼마전 중국의 환구망이 《《싸드약》이 박근혜(정권)을 죽음에서 살려낼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패당이 《싸드》배비를 강행추진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로 여론의 초점을 딴데로 돌리고 숨쉴 틈을 얻으려 하고있다는것, 이런 방식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려는것은 천진란만하다는것, 《싸드》든 군사정보보호협정이든 미국 등의 다리를 그러안으려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립을 격화시키며 남을 해치고 또 자기자신도 해치는것이라는것이다.

일리가 있는 평가이다. 실지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랭전이 조성되고 남조선이 지역나라들의 첫번째 타격대상이 되여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남조선은 물론 우리 주변나라들에서 《싸드》배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박근혜가 다른 때도 아니고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최악의 정치위기가 조성된 때에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그로부터 초래될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에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자기 식의 그 무슨 주견이나 주대가 있어서인가. 오래전부터 선무당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 그의 손발노릇을 해온 박근혜와 같은 허재비에게 그런것은 있을수 없다.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박근혜가 주동적으로 《싸드》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고 미국은 상대가 요구하니 어쩔수없이 그에 응하는 부차적인 대상처럼 느껴진다. 이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처하는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실지 주역은 미국이 놀고있으며 박근혜는 한갖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사실이 그렇다.

남조선은 그 무엇을 하나 하자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대판식민지이다. 자주권이란 꼬물만큼도 없으며 모든것을 미국이 좌우지하고있다. 정책작성은 물론 돈 한푼 쓰는것마저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것이 남조선정치의 실태이다. 군통수권도 미국이 틀어쥐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무장장비를 대주고있으며 저들의 전략에 따라 괴뢰군무력을 배치하고 움직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들에게는 여기에 삐칠 권한이 없다. 단 한명의 사병도, 한점의 무장장비도 미국이 모르게 움직일수 없고 반드시 상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것이 괴뢰들의 가련한 처지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 이렇게 미국의 손탁에서 놀아나는 인형노릇을 하였다.

박근혜역도도 다를바 없다. 언제인가 박근혜가 남조선에 날아온 오바마앞에서 숙제검열을 받는 녀학생처럼 두손을 공손히 모아잡고 대가리를 조아려 남조선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 박근혜가 주변나라들이 신경을 도사리며 반대하고있는 《싸드》라는 괴물을 제 마음대로 끌어들일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는 철두철미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적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것이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계획을 추진하여왔다. 처음에는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누꿎히기 위해 말바꾸기놀음을 하면서 어정쩡하게 시작하였지만 올해에 들어와서부터는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내밀고있다.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우선시하면서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과 요구에 복종시키는 박근혜의 너절한 외세의존기질, 정치적압둔성과 무지를 리용하면 능히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런데 초기부터 《싸드》배비가 《국익을 위한것》이라는 나발을 불어대던 철저한 친미분자 박근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남조선에서 터진 특대형추문사건의 주범이라는것이 말짱 드러나 머지않아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미국은 그것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경우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외세에 빌붙어서라도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박근혜역도의 심리를 자극하여 마지막까지 째께 우려먹으면서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챙기려 하고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박근혜를 내세우고 강행추진하고있는 《싸드》배비이다.

상전밖에 더는 의지할데가 없는 가궁한 처지에 놓인 박근혜는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미국의 전략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있다. 이미 일본과 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을 실현하여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을 위한 틀거리를 완성한 미국은 산송장신세가 된 박근혜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싸드》배비문제까지 락착지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에 속도를 내는데 대해 제일 불안해하는것은 중국이다. 《싸드》의 레이다는 중국의 전략적움직임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보는 감시경이나 같다.

지난 시기 박근혜역적패당은 《균형외교》의 간판밑에 중국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낯색도 살피면서 줄타기외교를 해왔다. 중국도 미국의 꼭두각시인 박근혜역적년을 고맙게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막아보려고 후한 대접을 몇번 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박근혜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중국에 등을 돌려대고 미국의 요구대로 《싸드》배비에 열성을 내고있다.

현실은 박근혜년은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정치인형에 불과하고 미국은 막뒤에서 그 끈을 당겼다놓았다 하며 박근혜년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흉측한 조종자라는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잔등을 두드려주며 후한 대접을 해주어도 미국에 끌려갈수밖에 없는것이 자주정신도, 민족의 얼도 못 가진 박근혜역적패당이다.

중국은 타고난 배신적기질을 가진 괴뢰들의 극,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들을 공연, 방영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싸드》의 남조선배비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도 보다 뚜렷해질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랭전이 부활되고있다.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가동이 현실화되고 지역의 대국들을 겨냥한 미싸일방위체계가 완성되여가고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는 보다 불안정해지고 평화와 안전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있는것, 없는것 다 섬겨바치며 충견노릇을 해온 주구까지도 서슴없이 제물로 삼는 미국의 탐욕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미국이야말로 동북아시아평화의 파괴자,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다.

리 학 남

서반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를 안아온 혁명투사

꾸바인민의 탁월한 령도자, 사회주의와 정의를 위한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활동가인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혁명적꾸바인민과 함께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으며 꾸바당과 정부와 인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서거는 꾸바인민과 사회주의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지구의 서반구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혁명투사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꾸바인민의 빛나는 성과들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이름과 직접 잇닿아있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일찌기 손에 무장을 들고 피어린 투쟁을 벌려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탁월한 혁명가이다.

1947년부터 1952년까지 국내외에서 독재정권의 부패한 통치제도와 폭행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한 그는 1953년 7월 반독재사상을 가진 165명의 남녀청년학생들과 싼띠아고 데 꾸바시에 있는 바띠스따독재정권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몬까다병영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여 무장투쟁의 첫 총성을 울리였다. 그러나 무장봉기는 실패하였다. 그는 100여명의 무장투쟁성원들과 함께 적들에게 체포되여 꾸바의 삐노스섬(오늘의 청년섬)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무장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몬까다에서 울린 총성은 억압받는 꾸바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감옥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53년 10월 싼띠아고 데 꾸바특별재판정에서 무장봉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바띠스따독재통치의 악랄성과 부당성을 폭로규탄하는 연설을 하여 독재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력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포할것이다.》라고 웨치였다. 꾸바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1955년 5월 석방된 후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7월26일운동》을 조직하고 메히꼬에 망명하여 유격투쟁을 준비하였다. 1956년 12월 메히꼬에서 82명의 무장인원들과 《그란마》호를 타고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를 들고 꾸바땅에 발을 디딘 그와 전우들은 첫걸음부터 원쑤들과의 피어린 격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많은 성원들이 희생되고 12명의 혁명가들과 7자루의 총밖에 남지 않았다. 이 7자루의 총이 꾸바혁명무력의 밑바탕으로 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꾸바혁명가들은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근거지를 두고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무장부대를 확대강화하면서 바띠스따군대를 격파하기 위한 작전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를 받는 무장부대는 꾸바인민의 물심량면의 지원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오에 합세해나섰다.

당황한 미제는 자기의 주구 바띠스따도당에게 비행기, 땅크, 대포 등을 넘겨주며 꾸바혁명을 말살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바띠스따도당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공세를 벌렸으나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1958년 8월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휘밑에 무장부대는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전면적인 공세로 넘어가 바띠스따의 본거지인 아바나로 육박하였다. 그 다음해 1월 마침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총대로 꾸바인민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꾸바땅에 사회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혁명승리후 그는 꾸바인민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로 되였다.

꾸바인민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인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밑에 용감한 꾸바인민은 지구의 서반구에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 봉쇄책동속에서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

꾸바혁명의 승리와 꾸바땅에서 일어난 자랑찬 전변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시련에 찬 무장투쟁과 올바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꾸바인민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을것이며 피델 까스뜨로 루스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주 세 명

조선에 대한 서방의 《혐오증》은 공정한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세계언론들 강력히 규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 일관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악의에 찬 거짓선전, 허위날조를 일삼는 서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공정한 세계언론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체스꼬인터네트신문 《쁘로스뻬움스까 쁘라브다》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이 좌절당하고 제국주의사상문화가 배척을 당한 이 행성의 유일한 나라는 바로 조선이라고 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서방언론들이 조선에 대한 허위와 날조로 엮어진 비방선전을 하고있으나 이것을 안받침할만한 그 어떤 증거자료도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을 질식시키려고 류례없는 제재와 봉쇄를 가하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그들은 자기 제도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

카나다세계연구소 웨브싸이트는 이런 글을 올렸다.

서방은 조선을 자극하고 위협하며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여론을 기만하고있다. 서방언론들은 아무런 꺼리김도 없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조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날조설을 퍼뜨리면서 행성을 어지럽히고있다.

그러나 조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황당한 거짓임을 잘 알고있다.

조선은 서방의 악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심부름군에 불과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발전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신통방판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서방언론들은 조선에 대해 소문과 립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것처럼 전하고있다.

너무도 명백하여 쉽게 반박당할수 있는 거짓주장들을 보도하다가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군 한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비난하는 비평가들도 이 나라에 집없는 사람과 문맹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조선이 인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에 대한 서방의 《혐오증》은 공정한 언론에 대한 모독이며 조선반도뿐아니라 인류에게 재난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조선에 대한 악의에 찬 발언들과 비난들은 그대로 전파되고있으며 인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할것이다.

베네수엘라신문 《디아리오 델 오리노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현실을 외곡하는 온갖 모략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있다.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은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나라이다.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이러한 현실을 심히 외곡선전하고있다.

누구나 조선에 가보면 미국과 서방의 선전이 거짓임을 톡톡히 알게 될것이다.

유엔의 제재를 반대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최근 한 회의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이란제재해제가 이란의 붉은 선이라고 하면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어떤 합의도 수락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나라가 자급자족의 길로 나아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기후변화와의 투쟁에서 단결할것을 호소

마로끄국왕 모하메드6세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기후변화와의 투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현재 아프리카대륙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난민이 1 000만명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특히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이 기후변화와의 투쟁을 위한 공동계획들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방의 분렬리간책동 단죄

남아프리카대통령 자코브 제들레이훌레키사 주마가 19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집권당)를 분렬리간시키려는 서방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서방렬강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성원들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며 당내에 균렬을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남아프리카의 집권당이 당대렬을 강화하고 진보적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계속 힘을 넣을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라오스부수상이 20일 민족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해 밝히고 정부가 다음해에 경제부문은 물론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데 국가적투자를 늘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가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라의 경제가 4년안으로 점차 정상회복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산림조성전략 발표

라오스정부가 최근 산림조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은 2020년까지 약 820만ha의 면적에 나무를 심을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전략실행을 위해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21일 이 나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가 전하였다.

전력문제해결노력

요르단에서 최근 나라에 풍부한 혈암유를 개발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21일 이 나라 정부는 국내에 매장되여있는 약 700억t의 혈암유를 채취할것을 계획하고 다음해부터 그 개발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7만kW의 발전능력을 가진 혈암유발전소건설도 함께 내밀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전력소비량의 80%를 자급자족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발전성과

남부수단이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21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에 교원들의 수를 1만 8 000명 더 늘이였으며 교육의 질도 개선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녀성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운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녀학생들의 수가 2006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고 한다.

식량문제해결노력

나미비아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수도 윈드후크에 먼저 식량은행을 내오고 운영하고있는데 현재까지 12만 2 000명이 그 덕을 보고있다.

식량은행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에게 종자를 보장하고 밭갈이를 도와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식량은행을 다른 지역들에로 계속 확대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 계속 발생

윁남에서 지카비루스가 계속 전파되고있다.

21일 이 나라 보건성은 남부지역에서 살고있는 22살 난 녀성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수는 66명에 달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메히꼬의 력사유적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4차 전국집회

일본에서 진행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4차 전국집회가 19일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무라야마 도모히꼬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회장과 전국집회 실행위원회 성원들, 일본 각지의 련대성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등이 집회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축하발언들에 이어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미즈따니 겐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과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의 부당성, 비법성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과의 련대를 강화하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조선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일미남조선군사동맹의 본질을 폭로》라는 주제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미평화협정체결, 일조국교정상화실현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집회에서 채택되였다.

한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결성 40돐 기념행사가 18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

서방대중보도수단들의 외곡행위 비난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악화되고있는 이라크의 모술시사태를 계속 숨기고있는 서방대중보도수단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무력이 지난 1개월동안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모술시와 그 주변에 4 0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방대한 무력과 군사장비를 동원하였지만 주민들의 형편은 절망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인도주의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나라들과 그들의 통제를 받는 대중보도수단들이 현실을 외곡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제재책동 배격

남부수단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남부수단의 정치인들에게 제재를 가한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평화과정을 파탄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단죄하였다.

총기류범죄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시에서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공원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2명이 죽고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공원과 그 주변이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반미시위

뻬루의 리마에서 18일 미국의 기만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국집권자의 자기 나라 행각에 반대립장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태평양연안나라들사이의 자유무역이라는 간판밑에 뻬루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리익을 침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언제나 자기들을 기만해왔다고 까밝히고 시위자들은 미국의 자유무역놀음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일자리축감

그리스의 정부기관들에서 일자리축감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현재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수가 5년전에 비해 약 30% 줄어들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피난민참사를 빚어낸 인권범죄자들

얼마전 국제이주민기구가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올해에 지중해에서 사망한 피난민수는 4 621명이며 최근 3일동안에만도 365명이 사망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간 피난민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지만 사망자수는 1.2배이상에 달한다는데 있다.

국제이주민기구는 구조설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작은 고무배로 적재인원을 초과하여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피난민들을 실어나르는 이주민매매업자들의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올해말까지 지중해에서 숨지는 피난민수가 5 000명계선에 도달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피난민참사는 지중해에서만 일어나고있지 않다. 죽음을 피해 피난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찾아간 서방나라들에서 갖은 학대를 받고있다.

지난 10월 프랑스의 북부도시에서 피난민수용소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져 거기에 발붙였던 8 000명의 피난민들이 이 나라 각지로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피난온 어린이들과 녀인들을 사람이 살수 없는 외딴 지역에 몰아넣고 그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고있으며 나우루에 있는 피난민수용소에서 사람들에게 고문과 맞먹는 고통을 줌으로써 자살자가 늘어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피난민들은 일명 《HotSpot》로 불리우는 수용소들에서 죄인취급을 받으며 신분확인 등의 명목으로 각종 심문과 지문등록을 강요당하고있으며 피난민의 지위가 승인될 때까지 18-24개월동안 수용소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심지어 경찰들은 지문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학대, 구타, 위협공갈, 성적모욕을 가하고 전기봉까지 사용하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들은 지문등록을 의무화할데 대한 유럽동맹의 황당한 규정과 요구에 의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국제대사령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피난민들에 대한 신분확인 및 지문등록과 관련한 유럽동맹의 압력은 이딸리아로 하여금 피난민들을 학대하고 비법추방하는데로 추동하고있으며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게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방에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행위도 성행하고있다. 유럽나라들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수는 1만 5 846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4분의 3이상이 녀성들이다.

유럽형사경찰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이딸리아와 스웨리예에서 실종된 6 000명의 피난민이 모두 랍치되여 성적학대를 당하고 인신매매되였으며 강제로동 등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서방세계가 입만 벌리면 부르짖는 《인권옹호》의 진면모이다.

날을 따라 점점 더 늘어나는 피난민행렬과 그들이 겪는 참사는 미국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중동을 테로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은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가 바로 《반테로》의 간판밑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세계제패를 위해 미쳐날뛴 미국에 의해 산생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전 도이췰란드수상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이슬람교국가》의 형성 및 강화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내에서도 오바마정권이 수리아정부전복을 목적으로 《이슬람교국가》의 전투원모집과 훈련, 무기 및 재정원조에 깊숙이 관여해온 사실들을 폭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처럼 테로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에 빠뜨린적은 없었다. 미국이 지배주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조장시키고있는 테로행위로 하여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있으며 그 테로분자들을 《숙청》한다고 하는 미국의 음흉한 《반테로전》에 의하여 중동지역에서의 피난민참사는 더욱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지고있다.

수리아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였다. 이 기간 47만명이상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90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라크에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8만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2014년이래 330만명이상이 피난민으로 되였다. 뿐만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을 비롯하여 미국의 더러운 군화자욱이 찍힌 곳이라면 어디 가나 피난민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있다.

미국주도의 련합군은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이라크 모술의 여러 구역들과 주변지역들에 4 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도시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절망적인것으로 만들어놓았다. 미국은 이러한 실태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것을 꺼려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서방과 그들의 통제를 받는 대중보도수단들이 모술의 현 사태를 계속 숨기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지난 1개월동안 모술과 그 교외에서의 피난민수가 5만 6 000여명이나 되는데 사태는 더 험악해져 40만-70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초래된 피난민문제는 지금 하나의 큰 국제적위기로 되고있다.

피난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말할것도 없고 피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 성원국들사이에 마찰이 생겨나고있으며 피난민대렬에 끼여든 테로분자들에 의하여 여러 유럽나라들에서 사회적안정이 파괴되고있다.

많은 국제회의들이 진행되고 국제원조기구들이 지원을 늘일것을 호소하고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계속 증대되는 피난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무엇보다 그 발생근원인 테로와 분쟁을 끝장내야 한다.

뛰르끼예대통령은 오바마가 부대통령 바이덴과 피난민문제를 론의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방안도 찾아내지 못하였고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으로서는 그럴수밖에 없다. 미국이 피난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곧 자기의 패권적야망을 철회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현실은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피난민참사를 빚어낸 장본인, 인권범죄자들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ㄱ-6119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